

world publishing news

문승현_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 마돈나, 아동문학가의 면모 거둬 보여

마돈나의 두 번째 아동도서가 11월 10일 출간되었다. 《피바디 씨의 사과 Mr Peabody's Apples》의 원화는 로렌 롱 씨가 그렸다. 이번 책은 앞서 출간된 《영국 장미 English Roses》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초판 발행부수는 13만 권, 데이비드 베컴의 자서전 판매량을 능가하긴 힘들겠지만, 마돈나의 창작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데 일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돈나의 세 번째 아동도서 《야콥과 일곱 명의 도둑 Yakov and the Seven Thieves》은 2004년 3월 15일에 출간될 예정이다. 모든 책들은 동일한 포맷을 두고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모두 다른 작가와 계약할 것이라고 한다.

● 미국 대학생들 해외 인터넷서점에서 도서 구입

미국 교재출판사들이 출판한 교재를 해외에서 구입할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 교재출판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재의 해외 역수입은 최근 들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해외도서가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때문. 한편 '미국도서가 할인된 가격으로 자국 내 역수입 되는 것으로부터 출판사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한몫을 거들었다. 미국의 한 학생은 동료 학생들에게 해외도서 구입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는가 하면, 어떤 대학서점은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 미국의 아동도서 시장 이색 성장

북 인더스트리 스터디 그룹 Book Industry Study Group, BISG이 2002년 미국 아동도서(13세 이하) 시장이 위축과 동시에 성장했다는 이색 통계를 발표했다. 1997년 비해 10.8퍼센트가 줄어든 4억6,030만 부가 팔려 아동도서 시장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아동도서 구입액은 18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일반 서점들은 저가 아동도서의 취급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아동 도서 판매는 대형체인서점과 독립서점들이 17퍼센트, 월마트 식의 창고 할인매장이 14퍼센트, 달러 스토어(모든 상품의 가격이 1달러)가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창고 할인매장의 판매가 현격하게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판매된 아동도서의 72퍼센트가 충동구매로 나타났으며, 아동도서 구매자의 33퍼센트가 연간 6만 달러의 소득자들로 분석되었다.

● 미국, 13 자리 ISBN 시대 도래

북 인더스트리 스터디 그룹은 지난 9월 18일 열린 회의에서 도서와 도서관련 제품에 13자리 북랜드 EAN 바코드 사용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13자리 북랜드 EAN 바코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처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13자리 EAN 바코드 사용이 세계 각국의 다른 업종의 거래처들과의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 독서 장려 캠페인 '책을 잡아라!' 독일 전역에서 개최

독일 코카 콜라와 독일 독서재단의 공동 독서장려 캠페인인 '책을 잡아라'가 독일 전역을 순회한다. 독일 6개 도시에서 11월 초 살아있는 거대한 도서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기차역, 전철역, 학교를 돌아다니는 책과 함께 '독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신간 도서에 대한 온라인 독자 퀴즈를 준비한 '움직이는 책'은 깜짝 놀랄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다. 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책'을 당첨자가 갖게 되는데,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모든 참가자 중 매월 20명을 추첨하여 도서를 선물한다.

● 침체 속의 독일 출판 시장

독일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그렇듯 독일 출판계 역시 침체상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종의 책을 출판하지만 이 전통은 경기 침체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01년 신간 발행종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신간 발행종수는 작년 7.3퍼센트로 감소한 6만 종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온라인 도서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도서판매는 20퍼센트 정도 증가하여 4억5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 판매의 10~15퍼센트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존 독일지사가 독일 시장의 60퍼센트를 점유하는 가장 커다란 온라인 서점. 2년 전 독일에는 온라인 서점이 5천여 개에 달했으나 조정과정을 거쳐 이제는 1천여 개 정도가 있다. 추후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중고도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독일에서는 중고도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독일에서 중고도서라 할지라도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 해리 포터, 독일에서 대 성공

오랫 동안 기다렸던 《해리 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독일어판이 지난 11월 8일 출간되었다. 독일어판을 출판한

칼젠출판사가 이 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칼젠출판사는 이 책의 초판을 2백만 부 출판하여 서점에 신속히 공급했다. 1,024페이지에 달하는 장정본은 정가로 28.50유로(39,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환불은 불가능하다.

영어 원서가 지난 6월부터 50만 부 이상 팔렸기 때문에 독일어판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엄청난 양의 선주문을 받은 칼젠출판사는 9월 초부터 기록적인 부수의 초판을 출판했고, 2쇄를 출판할 준비가 되었다고 전해 왔다.

● 독일 청소년들 독서율 하락

독일 소비자 분석 뉴스레터VA-Newsletter에서 실시한 14세 이상 독일인들의 독서실태 조사에서 독일 청소년들(14~19세)의 독서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5년 청소년들의 독서율은 전체 국민의 평균보다 60퍼센트 높았던 반면, 작년 조사에서는 47퍼센트로 하락했다.

● 국제출판협회, 중국 검열에 항의

국제출판협회는 힐러리 클린턴의 회고록 《살아있는 역사》의 중국어판 검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의 일린출판사는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책의 몇 부분을 삭제했는데, 이는 저자와 원서 출판사 사이몬 & 슈스터 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벌인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출판사가 문제의 부분을 자진 삭제했는지, 중국 당국의 간섭이었는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다. 국제출판협회는 "우리는 이 검열이 지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클린턴 여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출판사가 삭제되지 않은 개정판을 출판할 것을 요구한다"는 항의서신을 중국 일린출판사에 보냈다. **한문**

